

2018년 11월 28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커들로 발언 이후 상승 전환 성공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여전히 '점진적인 금리인상' 시사

### 커들로 및 클라리다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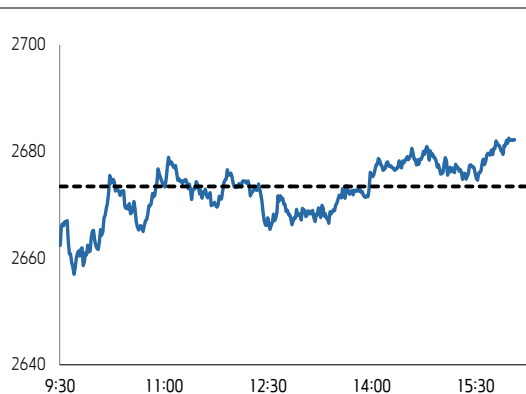
미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브렉시트 발언과 미-중 무역분쟁 언급 여파로 하락 출발. 이후 큰 변화 보다는 일부 금융주와 제약,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에너지 및 대형 기술주가 하락하자 약보합권 등락. 다만, 오후 들어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 위원장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타결을 언급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다우 +0.44%, 나스닥 +0.01%, S&P500 +0.33%, 러셀 2000 -0.87%)

미 금융시장은 ①커들로 위원장 발언 ②연준위원들의 발언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를 보임.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 위원회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정부와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라고 주장. 특히 "우리는 완전히 대화가 멈춰 있으나, 실망스러운 협상을 극복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라고 언급. 더 나아가 커들로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장하며 무역분쟁 우려감을 완화. 한편, 이번 회담의 주요 안건은 '지적 재산권'과 '무역 장벽 및 관세' 라고 언급.

연준 위원들의 발언 또한 금융시장에 변화 요인. 먼저 장 시작전 비둘기파로 알려진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었음. 지난 11월 16일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정책금리가 중립금리에 가까워 졌다" 라고 주장. 그러나 오늘은 "중립금리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연준 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다" 라고 언급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 다만, "건조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2% 목표 부근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라며 여전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주장. 채권 금리는 클라리다 부의장 발언 이후 하락폭이 소폭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오후에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Clearing House Conference 에 패널로 참석해 경제, 규제 등에 대해 논의. 대체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 및 점진적인 금리인상 표방 했으나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099.42	+0.79	홍콩항셱	26,331.96	-0.17
KOSDAQ		700.67	+0.76	영국	7,016.85	-0.27
DOW		24,748.73	+0.44	독일	11,309.11	-0.40
NASDAQ		7,082.70	+0.01	프랑스	4,983.15	-0.24
S&P 500		2,682.09	+0.32	스페인	9,085.60	-0.06
상하이종합		2,574.68	-0.04	그리스	604.26	+0.14
일본		21,952.40	+0.64	이탈리아	19,150.38	-0.4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GM, 트럼프 대통령 발언 여파로 하락

GM(-2.55%)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보조금 삭감등을 언급하자 하락폭을 확대 했다. 포드(-1.28%)도 동반 하락했다. 애플(-0.22%)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언급하자 2% 넘게 하락 출발 했다. 그러나 장중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되자 낙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유나이티드테크(-4.14%)는 구조조정 비용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페이스북(-1.01%)은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 이슈가 부각된 여파로 하락 했다. 더불어 영국 의회에서 주커버그를 비난한 여파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반면, 화이자(+1.68%), 유나이티드 헬스(+1.87%), 에브비(+1.67%) 등 제약주는 브리스톨마이어스(-3.00%)가 임상시험이 충족하지 못하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의회 교착화가 지속될 수 있어 향후 약가 인하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JP모건(+0.42%), BOA(+0.65%) 등 금융주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발언 이후 국채금리가 낙폭을 축소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33%	대형 가치주 ETF	+0.35%
에너지섹터 ETF	-1.19%	중형 가치주 ETF	-0.22%
소매업체 ETF	+0.24%	소형 가치주 ETF	-0.60%
금융섹터 ETF	+0.08%	배당주 ETF	+0.34%
기술섹터 ETF	+0.20%	변동성 ETF	-1.78%
소셜 미디어업체 ETF	-0.24%	대형 성장주 ETF	+0.18%
인터넷업체 ETF	-0.47%	중형 성장주 ETF	-0.49%
리스업체 ETF	+0.54%	소형 성장주 ETF	-1.07%
주택건설업체 ETF	-0.14%	신흥국 고배당 ETF	+0.37%
바이오섹터 ETF	-0.26%	신흥국 저변동성 ETF	+0.30%
헬스케어 ETF	+1.04%	하이일드 ETF	0.00%
곡물 ETF	+0.12%	물가연동채 ETF	-0.27%
반도체 ETF	+0.18%	Long/short ETF	-0.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6.45	-0.33%	-3.66%	-1.42%
소재	332.89	-1.25%	-2.18%	+4.96%
산업재	587.75	-0.24%	-1.10%	+2.89%
경기소비재	824.77	+0.24%	+1.15%	+1.99%
필수소비재	565.79	+0.91%	-1.25%	+0.93%
헬스케어	1,055.87	+0.99%	+0.56%	+4.18%
금융	439.83	+0.07%	-0.82%	+3.99%
IT	1,149.20	+0.24%	+0.05%	-2.09%
커뮤니케이션	145.59	+0.57%	+1.01%	+0.97%
유틸리티	277.21	+0.87%	-0.46%	+0.90%
부동산	204.86	+0.56%	-1.06%	+3.5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외국인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50% MSCI 신흥 지수도 0.70%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30계약)에 힘입어 1.10pt 상승한 273.5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9.6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커들로 백악관 국가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중 무역분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본격화 되었던 지난 6 월 이후 한국 증시는 13% 넘게 하락하며 글로벌 주요 증시에서 중국 다음으로 낙폭이 컸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 증시에 가장 큰 부담을 줬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 11 월에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면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을 높인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여전히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등 연준위원들의 발언과 국제유가가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되자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달러화가 유럽 정치 불확실성과 무역분쟁을 빌미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외국인 수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경제지표 둔화

11 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137.9) 보다 둔화된 135.7 로 발표 되었다. 특히 기대지수가 전월(115.1) 보다 크게 감소한 111.0으로 하락한 점이 둔화 요인 중 하나였다.

9 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5.1% 상승에 그쳐 지난달 발표치(yoy +5.5%) 보다 낮았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달러 강세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무역분쟁 우려가 높아진 여파로 하락 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11 월 원유 생산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부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OPEC 정례회담에서 감산 합의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 하락폭은 제한 되었다. 더불어 장 후반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을 높인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의 발언도 낙폭 축소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와 파운드화 약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다만, 장 후반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자 강세폭이 축소되었다. 유로화는 프랑스 소비자신뢰지수(95→92), 이탈리아 소비자신뢰지수(165.5→114.8) 등 경제지표가 둔화된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렉시트 합의에 대해 “EU 에는 훌륭한 합의인 것 같으나 영국이 우리와 무역을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라고 언급하며 향후 미-영 무역협상에 대한 부담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소비자신뢰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을 하회하자 하락 출발 했다. 그러나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지난 16 일 “정책금리가 중립금리에 다가섰다” 라고 주장한 데서 한발 물러선 “연준안에 중립금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주장하자 낙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5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12개월 평균(2.47 배) 보다 높은 2.49 배를 기록 했다.

금은 달러화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 또한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43% 상승 했으나, 철근은 0.71%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1.56	-0.14	-9.86	Dollar Index	97.367	+0.30	+0.55
브렌트유	60.21	-0.45	-3.71	EUR/USD	1.1295	-0.29	-0.66
금	1,219.90	-0.72	-0.91	USD/JPY	113.78	+0.18	+0.90
은	14,221	-0.85	-2.11	GBP/USD	1.2735	-0.72	-0.41
알루미늄	1,930.50	-1.08	-0.49	USD/CHF	0.9987	+0.04	+0.33
전기동	6,121.50	-1.09	-1.01	AUD/USD	0.7226	+0.07	+0.17
아연	2,435.00	-2.09	-4.55	USD/CAD	1.3297	+0.32	-0.07
옥수수	368.50	+0.14	-1.27	USD/BRL	3.8764	-1.42	+3.18
밀	506.50	-1.46	0.00	USD/CNH	6.9553	+0.07	+0.15
대두	875.50	+1.54	+0.20	USD/KRW	1129.40	+0.04	+0.32
커피	113.30	+2.26	-2.87	USD/KRW NDF 1M	1129.65	+0.04	+0.02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055	+0.18	-0.75	스페인	1.551	-0.90	-9.40
한국	2.151	-1.90	-5.40	포르투갈	1.877	-0.50	-10.30
일본	0.092	+0.20	-1.00	그리스	4.347	-2.60	-31.80
독일	0.350	-1.10	0.00	이탈리아	3.287	+2.10	-32.70